

## 인지복합도와 독단주의의 이론과 방법의 비교\*

홍 속 기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Schroder, Driver 와 Streufert (1967)와 Rokeach (1960)는 전통적인 성격검사들을 사용하여 성격특성으로서의 인지복합도와 독단주의를 연구한 반면, Suedfeld와 Rank (1978), Ertel (1972)은 서로 독립적으로 정치적, 역사적 텍스트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현실의 갈등 혹은 위기가 행동의 복합도와 독단주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과제상황에 따른 성취행동의 복합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Schroder 등(1967)은 환경복합도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독단주의에 있어서는 불안상황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본고에서는 “복합적 과제환경”과 불안상황의 두 가지 공통적인 본질적 측면으로서 과제의 어려움과 개인의 높은 동기상태를 구별하고, 인지복합도와 독단주의 성향의 개인차를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충분한 강도로 존재하는 “복합적 과제장면”이 가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각 이론을 제시한 후 원저자들이 발달시킨 검사들이 먼저 소개되고, 복합도에 대해서는 Suedfeld 등의, 독단주의에 대해서는 Ertel의 내용분석 방법과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대형이론과 “학과”들의 시대가 지나고 성격심리학에서는 새로운 장면 혹은 갈등을 내포하는 장면에 대한 개인의 접근 혹은 회피 방식들에 초점을 두는 “인지적” 성격변인들이 점점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방어 對 sensitization, 場의 존성 등의 변인들에 대해서 Streufert & Strufert, 1978, 2장 참조). 본고에서는 이러한 변인들 가운데서 Schroder, Driver 및 Streufert (1967)의 인지복합도와 Rokeach (1960)의 독단주의를 고찰, 비교하고자 한다.

Schroder 등과 Rokeach는 원래 개인성향 혹은 성격특성으로서 인지복합도 혹은 독단주의

이론을 내놓았지만 동시에 문제해결행동의 복합도 혹은 독단주의도 연구하였다. 그러나 중점은 역시 성격특성 측면에 두었으며, 행동 상에 표현된 복합도나 독단주의 수준의 상황적 요인들의 개념화는 비교적 게을리하였다.

Schroder 등은 인지복합도 측정을 위하여 분장완성형 검사를 사용하였고 Rokeach는 40개 문항의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1970년대에 Suedfeld와 Rank (1976), 그리고 Ertel (1972)은 내용분석적 방법을 사용하여 정치, 역사, 학문 등의 텍스트들의 복합도 혹은 독단주의를 평가하였다. 범상황적인 개인성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검사방법들과 달리 이 방법들은 성취행동의 특성을 측정하였다. Suedfeld들과 Ertel은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행동의 복합도와 독단주의가 동일한 개인에 있어서도 상황의 특성에 따라 예민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성격특성이란 행동에서 추론될 수 밖에 없으므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특성이 보다 정확하게 이해된다면 성격변인의 상대적 중

\* 이 논문은 필자가 1982년 1월에 서독 Göttingen의 Georg-August 대학 자연과학부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의 제 1부에 기초한 것이다. 중심용어들의 번역은 미진하나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complexity는 “복합도”, complex는 “복합적”으로 옮겼다. (2) dogmatism은 “독단주의”, dogmatic은 “독단주의적”, belief, disbelief는 “신념”, “비신념”으로 옮기기로 한다.

요성도 보다 확실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만일 행동을 복합적으로 또는 독단주의적으로 만드는 상황 변인들이 밝혀진다면 지속적(성향적)으로 높은 복합도 혹은 독단주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과거에 바로 그러한 상황들에 되풀이하여 노출되었었던 것이라고 추측하고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상황 변인들의 보다 정확한 이해는 형식상의 이유로, 즉 개념화의 불명료성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는 Schroder 등과 Rokeach의 이론을(Seiler, 1973; Kluck, 1978; Krohne & Laucht, 1978; Roghmann, 1966) 보다 명확하게 진술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두 이론을 차례로 소개함에 있어서 필자는 문제해결(Dörner, 1976 등) 연구들에 의존하여 행동의 복합도와 과제특성 간의 관계를 규정해보고자 한다. 독단주의에 있어서는 불안개념에 의존하여(Spielberger, 1972 a, b, trait-anxiety와 state-anxiety) 개인성향으로서의 독단주의와 일시적 상태로서의 독단주의를 구별하고, 여기서 또한 상황의 역할을 고찰해 보겠다.

## 인지복합도(Cognitive Complexity)

“Human Information Processing”이라는 저서 제목이 말해주듯이 Schroder 등(1967)은 자신들의 인지복합도 이론을 성격에 대한 정보처리적 접근으로 제시한다. 인간을 정보처리체제로 보는 것은 물론 시대적 유행의 영향이며, Schroder 등의 “정보처리체계”는 이를테면 Newell과 Simon(1972)의 IPS(information processing system)와 은유적으로만 비교될 수 있다. 구조 혹은 체계라는 개념으로써 Schroder 등은 우선 무엇보다도 행동주의적 입장을 반박하려고 한다. 즉, 인간은 개별 자극들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용, 처리하고 이때 컴퓨터와 비슷하게 프로그램들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행동은 그가 자기의 환경과 주위사람들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식 [“how the individual articulates and organizes

his concepts of relevant aspects of his environment” (Harvey, 1967/70, p.315)]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인지구조는 보통 “좋다-나쁘다”, “민주주의-독재주의” 따위의 양극적 의미척도로서 표현되는 인지적 차원들로 이루어진다. 인지구조가 복합적이라는 것은 그 안에 서로 독립적인 차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차원들의 조합·비교 법칙들이 경직되지 않고 유연(flexible)한 경우이다. 구조의 이 두 측면을 분화(differentiation)와 통합(integration)이라 부른다.

체계의 기능이 예를 들면 높은 스트레스 하에서 단기적으로 변할 수 있기는 하지만 구조의 복합도는 시간과 상황이 변화해도 비교적 불변적이다. 이 안정성으로 인하여 구조특성은 지속적 개인성향으로 되며 이에선 일련의 특징적 행동방식들이 뒤따른다.

복합적 구조를 지니는 성격은 환경을 동시에 여러 관점에서 고찰한다. 판단과 결정은 여러 관점들의 비중이 비교된 후 이루어진다.(Schroder 등, 1967, 2장의 Fig.1-4 참조). 인지적 과정들은 내적으로 통제되며 자극에 직접 의존되지(stimulus-bound)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들을 받아들일 때는 그들의 입장에 서봄으로써(“role flexibility”) 적합성을 검토한다.

단순한 사람들은 보다 작은 수의, 서로 관련이 없는 판단준거들을 사용한다. 그들은 빠른 결정, 극단적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입장을 떠나지 못하므로 역할유연성이 결여되어 있다. 반면, 권위인물의 의견이라면 적부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Schroder 등(1967)에 따르면 인지복합도는 지능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인다. 그들은 지능이 지식의 재생산보다는 통합적 과정들의 유동성을 전제한다고 보고 이 상관을 그들의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해석한다.

한 개인의 복합도 수준은 그가 “최적”(optimal) 상황에서 도달하는 최고의 성취수준을 나타낸다. 과제환경(task environment)이 최적이지 못하면 개인의 성취는 평소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

Schroder 등에 따르면 과제환경은 일차적 및 이차적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일차적 특성들은 형식적 과제성격을 말하는데, 정보의 양, 다양함, 변화율, 새로움 등이 이에 속한다. 피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주관적으로는 과제의 어렵거나 쉬운 정도를 결정하는 특성들이라 할 수 있다. 이차적 환경특성들은 과제의 보상 및 처벌적 측면들을 말한다(각각 “eucity”와 “noxiy”). 개인의 동기 내지는 “orientation (‘set’)”에 영향을 주는 특성들로서, 개인에게 과제가 지니는 의미 내지는 중요성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각각의 과제 및 상황특성들에는 “최적” 강도가 있으며, 강도가 그 이하 혹은 이상일 때는 개인의 복합적 과제해결이 저해된다고 가정된다. 전체적으로 “최적 환경복합도”가 성립되는 것은 각각의 과제 및 상황특성들이 최적일 때, 즉 과제가 매우 어렵지도 매우 쉽지도 않으며 보상과 처벌 또한 중간 정도일 때이다. 그러나 Schroder 등에 따르면 환경특성들은 서로 補償하는 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 특성이 매우 강할 경우 다른 한 특성이 매우 약하다면, 예컨대 과제가 아주 어려운 대신 보상이나 처벌이 아주 강력하다면, 전체적인 환경복합도가 최적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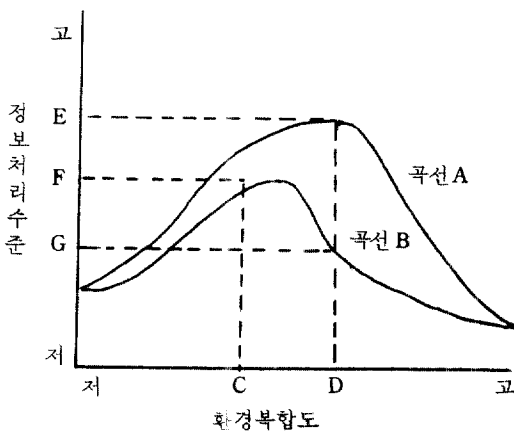


그림 1. 복합적(A) 및 단순(B) 성격구조에 있어서 환경복합도와 행동복합도의 관계 (출처: Schroder 등, 1967, p.40)

전체 과제장면의 환경복합도와 “정보처리수준”간의 거꾸로 놓은 U字 함수를 그림이 보여 준다. 곡선 A는 인지적으로 복합적인 사람, B는 단순한 사람의 행동을 나타낸다. 이 곡선들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다: (1) 극단적으로 낮거나 극단적으로 높은 환경복합도에서는 효율성이 극소화되고 집단간의 차이 또한 극소이다. (2) 복합적 집단은 단순한 집단보다 더 높은 환경복합도 수준에서 성취의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며, 거기서(점 D) 단순-복합 집단간의 효율성의 차이가 최대가 된다. 그러므로 개인차의 연구를 위해서는 환경복합도가 비교적 높은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U-가설” (Schroder 등, 1967)에 따르면 환경복합도는 과제복합도(일차적 환경특성), eucity, noxiy(이차적환경특성)의 가산적 함수이다. 그러나 보상, 처벌의 측면은 복합도보다는 강도의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 이차 특성들을 병합하여 전체적 환경복합도를 결정하기보다는, 과제 자체의 복합도와 (이차적) 상황특성들에 의해 결정되는 동기의 강도를 서로 분리하여 행동복합도와 관련시키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덧붙여, “최적” 과제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과제복합도와 동기 간의 補償의 정도는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 동기가 낮은 사람은 그의 성향적 복합도 수준에 무관하게 단순한 행동을 보일 것이며, 이 점에서 단순한 과제를 앞둔, 동기가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개인의 역량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최적 과제상황은 과제복합도와 동기 모두가 높은 상황이 될 것이다. 즉, 개인에게 과제가 어느 정도 어렵고 동시에 중요성을 띠어야 한다.

그러한 과제장면에서 개인의 행동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수단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즉 문제해결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 문제라는 개념은 과제의 어려움(“장벽”, Dörner, 1976)과 문제해결자의 동기(“목표”) 둘다를 포함한다. 어떠한 事象이 한 개인에게 문제로 되는 것은 그가 현상태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더 나은 상태로 바꾸고자 하나 당장은

그 방식을 알지 못할 때이다(Dörner, 1976). 문제해결이란 목표가 성취될 때까지 개인이 구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용하는 과정이다.

일상생활에서는 현상태는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식의 비교 준거들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Schroder 등(1967)이 이론의 초점으로 삼는 사회적 및 인간관계 상황에서의 문제들은 주로 그러한 유형이며, 이때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들의 적용이란 인지구조에서 적절한 인지적 차원들을 끌어내어 적용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한 장면들에는 “정답”은 있을 수 없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들은 개인이 어떤 인지적 차원들을 어떻게 적용시켜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따라 비교될 수 있다. 판단과 결정의 내용(“무엇”) 보다는 구조(“어떻게”)를 중시하는 Schroder 등은 동원된 인지적 차원들의 수와 상호관계들에 따라 행동의 복잡도를 결정하려고 한다.

행동의 복잡도를 적절하게 연구할 수 있는 상황을 본고에서는 “복합적 과제장면”이라고 부를 것이다. 문제 대신 과제는 말을 쓴 것은 인지 복잡도 이론이 주로 관심두는 사회적 갈등장면을 인지심리학적인 문제해결행동 연구에서의 체스나 수학문제들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복합적”이라는 수식을 붙인 것은, Schroder 등도 “복합적 환경”이라는 말을 썼거니와, 그들의 이론이 문제삼는 과제상황들이 목표와 수단 둘 다 불확실하고 잘 정의되지 않은 “복잡”한 유형(소위 “변증법적”문제, Dörner, 1976)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복합적 과제장면이라는 말은 위에서 논의한 “최적환경복합도”의 두 결정적 준거, 즉 문제의 어렵고 복잡함과 개인의 높은 동기 둘 다를 포괄한다. 이러한 경우 문제해결이란 과제장면을 정의하고, 행동가능성들을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행동 편으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포함할 것이다.

문단완성검사(Paragraph Completion Test, PCT). Schroder 등(1967)이 인지복합도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이 검사는 6-10개의 문항, 즉 문장 서두로 구성된다. 내

용적으로 이 문항들은 사회적 영역에서의 갈등과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장면들을 그린다(예를 들면: “의혹에 빠지면……”; “규칙이란……”; “비판을 받게 되면……”; 등).

피험자는 각 서두에 대해 약 2분 동안에 2~3 문장을 덧붙인다. 완성된 문장들은 일반 및 특수 범주들에 따라서 7점 척도 상에서 평가된다(Schroder 등, 1967, p.187-189; Phares & Schroder, 1969).

일반적 지표들(general indicators)은 구조적 측면들에 관계된 것으로서 크게 다음과 같은 4개의 단계로 구분된다. 완성문장들이 단 하나의 확고한 법칙에 의한 해결인 경우(1점); 두 개의 법칙구조들에 의한 해결인 경우(3점); 비교법칙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5점); 두 개 이상의 지각이나 해석들이 동시에 주목, 비교되는 경우(7점). 2, 4, 6 점은 중간단계들에 해당하는 반응들에 주어진다.

특수(specific) 지표들은 불확실과 갈등에 대한(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 그리고 문제해결행동의 일반적 양상을 서술한다. 앞의 일반지표들이 완성문장들의 구조적(분화, 통합)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비해, 특수지표별 평정은 피험자의 태도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내용중심적이다.(Schroder 등 1967, p. 190f., Table A2.1~A2.3의 평정실례 참조).

Schroder 등(1967)의 평정 실례들을 보면 복잡도 평정이 반응의 구조보다는 내용에, 즉 일반적 범주보다는 특수범주들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받는다(Greif & Seiler, 1973; Scott, Osgood, & Peterson, 1979, p.52f., “판단적” 對 “분석적” 평가). 이러한 점은 성격과정들의 내용보다는 구조에 강조를 둔다는 Schroder 등의 명분에 위배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Greif & Seiler, 1973; Kluck, 1978; Krohne & Laucht, 1978).

이와 같은 비판적 배경 위에서, 전적으로 구조적 측면들만 고려한다는 PCT 평정체계가 Seiler 등(Seiler, ed., 1973의 공동연구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체계에서는 완성된 문장들의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들의 수가 분화도

를 결정하여 범주들 간의 관계가 통합도를 결정한다. 이 분화·통합도와 Schroder 등의 방식에 의해 평정된 복잡도 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었다(.60 이상, Seiler & Seiler, 1973).

Seiler 등의 복잡도 측정치들은 완성문장들의 길이(평균 단어 수)와도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60, 위). 성격 및 성취점사들을 포함하는 상관연구에서 복잡도 측정치들이 동기 요인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Geyer & Greif, 1973). 많이 쓴 사람이 복잡도도 높았다는 이들 연구의 결과도 시사하듯이, 과제가 피험자들에게 충분히 복잡적이고 흥미있지 않을 때 그들의 행동은 성향적 인지복합도가 아니라 실험자 혹은 실험에 대한 호의, 열성 등을 반영한 것 같다(Seiler, 1973, p.203의 논의 참조). 이것은 "복합적 과제장면"의 설정이 복잡도의 개인차 연구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 통합복합도 (Integrative Complexity).

Suedfeld와 동료들은 Schroder 등의 PCT 준거들에 따라 정치·역사적 문서들을 평정하고, 텍스트의 복잡도를 저자들의 성향보다는 그들이 처한 상황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성취행동(텍스트)의 복잡도를 성격특성으로서의 인지복합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그들은 통합복합도라는 말을 쓴다.

Suedfeld와 Rank (1976)는 혁명의 전후에 쓰여진 혁명지도자들의 텍스트들을 비교했다. 이들의 가설은 혁명 전후기를 통해서 모두 성공적이었던 지도자들의 글은 투쟁기에는 복잡도가 낮았고 혁명의 성공 후에는 복잡도의 상승을 나타냈으리라는 것이었다. 혁명의 승리 이후

에 권력을 상실한 지도자들은 성공적인 지도자가 "선동자"에서 "실무자"로의 변화를 보인 것과는 달리 그러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성공, 실패집단에서 복잡도 변화 간의 차이는 가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유의하였다.

그후의 연구들에서 Suedfeld들은 국제분류가 선전포고로 끝났을 때와 평화적 해결을 보았을 때 오고 간 문서들의 복잡도를 비교하였다(Suedfeld & Tetlock, 1977; Suedfeld, Tetlock & Ramirez, 1977). 지금까지의 결과들은 분쟁해결의 실패 직전에는 복잡도가 내려가고 성공적 해결에서는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해결의 성패가 복잡도 수준의 고저와 관계된다는 것은 복잡도 개념이 사회적 문제해결 행동에 관계된 변인으로서 타당성이 있음을 뒷받침해준다. 복합적 과제장면과 관련지어 말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지거나 상황적 압력으로 인해 동기상태 또한 극화됨에 따라 복합적 문제해결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cf. Dörner, 1981; Dörner & Reither, 1978).

상황에 따라 행동의 복잡도가 달라진다고 해서 성격변인으로서의 인지복합도 개념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특정한 성취행동의 통합복합도가 상황과 성향이 같이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보기 위하여 한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자.

1947년부터 1976년까지 중동의 전쟁·평화 시기의 복잡도 수준 비교에서 Suedfeld 등(1977)은 이스라엘에서(4.00-1.52) 이집트와 시리아에서(3.00-2.00)보다 전쟁 직전의 평균적 복잡도 감소가 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은 위기에 처할 때 약간의 감소(4.10-3.22)를 보인데 반하여 우방인 소련은 약간의 증가(2.94-3.42)를 보였다. 그러나 이 우방들의 감소·증가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평화시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각각 아랍 및 소련보다 유의하게 높은 통합복합도를 나타냈다. 이것은 네 집단의 "성향"의 차이를 시사해주며, 위기가 닥쳤을 때 복잡도 저하 정도가 상이한 것은 나라마다 위기가 서로 다른 정도의 위협

1) 문서 혹은 텍스트는 글일 수도 있지만 연설 따위일 수도 있으며, 따라서 "저자"는 연사를 의미할 수도 있다. 텍스트의 저자는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해 오고 간 문서들은 형식상 당면국가들이 "저자"의 위치를 차지한다. Suedfeld 등은 저자의 성격특성이 아니라 상황요인의 효과를 연구하려는 것이므로 저자의 정확한 확인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텍스트가 어느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산출된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을 의미한 것이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Suedfeld 등의 견해에 따르면, 분쟁 위기들은 아랍제국보다 이스라엘에게 더 절박한 생존의 위협이었으며, 미국에게는 체면 상실이었고, 소련에게는 “이득의 기회”였다.

객관적 상황 자체가 아니라 개인이 그 상황의 변화로 인해 잃거나 얻을 것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느끼는 위기감이 그 개인의 북한도 선택과 더불어 구체적 행동의 복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서 만일 이 “주관적 위기감”의 정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다면 복합적 국제상황에서의 행동을 좀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소개할 독단주의 개념은 객관적 문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정서 반응과 관련된 변인을 다룰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다.

### 독단주의 (Dogmatism)

권위주의이론(Adorno, Frenkel-Brunswik, Levinson & Sanford, 1950)이 反유대주의 내지는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에서 출발하여 극우익에 초점을 둔 반면, 독단주의이론(Rokeach, 1960)은 일반적 권위주의이론임을 표방한다. 즉, 태도, 편견, 이념 등의 내용이 아니라 구조, 즉 “관념, 사람, 권위를 용인 혹은 거부하는 방식”(위, p.8)이 이론의 대상이 된다.

형식적으로 독단주의 혹은 폐쇄성(closed-mindedness)은 신념-비신념체계(belief-disbelief system)의 특징이다. 신념, 비신념이란 각각 개인이 옳다고 용인하는 혹은 그르다고 거부하는 의견, 생각들이다. 한 체계의 독단주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신념과 비신념들의 내용이 아니라 구조적 측면, 즉 그것들의 체계화 양상이다. 신념과 비신념들의 체계화는 신념-비신념, 중심-주변, 시간조망(time perspective)의 세 차원 상에서 이루어진다.

독단주의(폐쇄)체계는 비독단주의(개방) 체계에 비하여 작은 수의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비신념체계가 신념체계에 비하여 덜 분화되어 있다(신념-비신념 차원). 세계와 자기, 타인에 대한 그들의 “원시적 신념들”(primitive beliefs; “중심영역”의 내용)은 불안과 불신으

로 특징지어지며, 이러한 기본태도는 긍정적 권위주의의 절대적 의존(“일반적 권위주의”)과 부정적 권위의 전면거부(“일반적 편협”)를 낳는다(중심-주변 차원). 새로운 정보들은 기존의 신념들과의 논리적 모순 여부에 따라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권위들에서 그냥 받아들여진다. 비신념들은 서로 간에 구별되지 않으며(이러하면, 내 편이 아닌 한 모두 한 통속이라는 식) 신념들과의 관련도 인지되지 않는다.

폐쇄적 체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좁은 시간조망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연결되고 상호관계되는 것으로서 이해되지 않고 과거나 먼 미래에 고착된다.

신념-비신념체계는 Rokeach(1960, p.67)에 의하면 인간의 상반되는 두 가지 본질적 욕구, 즉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인지적준거틀(cognitive framework)에 대한 욕구와 현실의 위협적 측면들을 막아내고자 하는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킨다. 전자가 우세해지면 개방적 체계가 되고, 후자가 더 강해지면 폐쇄적이 된다. Rokeach(1966)의 말을 빌리면, “인간은 그의 태도체계들에서 가능한 만큼 개방적이고 필요한 만큼 폐쇄적이라고 한다”(p.96).

문제는 언제 개방적일 수 있으며 언제 폐쇄적이어야 하는가에 있다. 독단주의를 “불안에 대한 인지적 방어망”(Rokeach, 1960, p.47)으로 이해할 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우선 이렇다: 개인은 불안이 없으면 개방적이고, 불안이 생기면서 그만큼 폐쇄적 내지는 독단주의적이 된다.

실제로 독단주의 성향과 불안 성향 간의 상관은 높다(Rokeach & Fruchter, 1956). 그러나 불안(state-anxiety)이 일시적으로 높거나 낮아질 수 있듯이 인지적 방어, 즉 독단주의의 수준도 그에 따라 올라가고 내려감을 생각해볼 수 있다. Rokeach에 따르면,

“상황이 개인에게 위협적일수록 그의 신념체계는 폐쇄적이 될 것이다. 초기경험들의 결과로 성격에 심어진 위협 또는 불안이 폐쇄체계를 형성, 지속시킬 수 있듯이, 상황적 위협들도 유사한 효과를 초래하여 그 효과는 최소한 그 개인이 위협을 체험하는 동안은 지속될 것이다(Rokeach, Toch, & Rottman, 1960, p.377).”

불안은 위협신호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서, 공포와 분노 같은 기타의 부정적 정서들과 다른 점은 그 위협이 상징적이고 예기적이며 애매한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Lazarus & Averill, 1972). 이러한 자극상황은 어렵지 않게 “복합적 과제장면”들과 관계시킬 수 있다.

“불안의 경우 이 (위협) 자극들은 복합적이고 애매하며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협자극들이 내포하는 위협에 개인이 의미있게 반응할 수가 없다. 위협의 지각보다는 이 위협에 대해 적합한 반응이 불가능하다는 체감이 불안정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여진다(Lazarus & Averill, 1972) (Krohne, 1975, p.11).”

위협의 지각이란 달리 말하면 문제의 인지이며, 적합한 반응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개인이 당장은 적합한 해결방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Lazarus & Averill, 1972, “cognitive appraisal”과 “cognitive reappraisal”) 불안이 크지 않으면 개인은 위협장면을 능동적으로 탐색한다(Krohne, 1975, “불안극복”). 그러나 불안이 아주 커지면 위협을 부인하던가 무기력해짐으로써 위협상황에서 도피한다(위, 불안방어). 즉, 적절한 불안은 문제의 인지를 뜻하므로 불안이 전혀 없는 상태보다 오히려 문제 해결행동을 촉진하나, 큰 불안은 문제 자체를 부인하거나 문제해결을 포기하게 한다.

인지적 불안방어로서 독단주의는 불안과 불안방어 둘 다를 포함한다. 독단주의적이라 할 수 있는 방어태도는 일반적 권위주의와 일반적 편협이다. 즉, 불안장면과 싸우지 않고 권위인물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권위인물의 상황평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위협은 제거되지만, 그 신념과 여타 신념 및 비신념들과의 합치여부가 검토되지 않았으므로 인지적 체계의 내적 일관성이 손상된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의 부인은 문제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며, 내적 일관성이 결여된 체계는 점점 더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조그만 위협에도 벌써 불안방어를 나타낼 것이다.

불안반응의 강도가 현재의 위협과 불안성향(trait-anxiety) 양자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Spielberger, 1972 a,

b), 독단주의적 반응에서도 상황과 성향이 같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독단주의적 반응이 개인의 지속적 성향 뿐 아니라 현재의 상황 및 과제특성들에도 의존한다는 것은(cf. Ehrlich & Lee, 1969), 성향이 낮은 사람들도 상황적 위협이 크면 독단주의적 반응을 나타낼 수 있고, 위협이 없으면 성향이 높은 사람들도 그러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한다. 즉, 독단주의성향이 높고 낮은 사람 간의 차이는 위협이 매우 작거나 매우 클 때에는 최소에 머물 것이다(inveitc etc “U-가설”참조). 상황이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독단주의적인 사람은 비교적 작은 위협에서도 비독단주의적인 사람보다 더 큰 방어경향, 즉 권위주의와 편협을 나타낼 것이다.

독단주의(D-) 척도 Rokeach (1960)의 D-척도는 최종 E형에서 피세적 체계의 성격특징들을 기술하는 4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문항들의 구성을 보면, 불안과 권위주의가 독단주의의 본질적 측면으로 강조된다(32 문항). 그러나 불안은 낮고 동시에 권위주의는 높은 수가 있으므로(cf. Rokeach & Kemp, 1960 ; Roghmann, 1966, p.111, “극단적 독단주의에 의한 효과적 불안방어”), 불안, 권위주의, 구조특성들을 분리하여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위, p.100f.).

질문지의 모든 문항들은 한 방향으로 진술되어 있어서 긍정을 하면 독단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채점된다. 이러한 사태는 반응경향(response set)의 문제를 가져온다(Wilson & Nias, 1973, “이중동의 현상”; cf. Rokeach, 1960의 옹호, p.405).

이론적으로 중요한 Rokeach의 가정, 즉 D-척도가 권위주의(F-)척도와 달리 일반적 권위주의를 측정한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되었다(Rokeach & Fruchter, 1956 ; Rokeach & Kemp, 1960). 그러나 D값과 F값의 상관은 높다(Rokeach & Fruchter, 1956에 의하면 .64).

PCT에서는 검사의 질의 가장 중요한 준거인 객관성, 즉 검사결과가 채점자와 무관하게 동일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되는 반면, D-척도에서는 결과가 피험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인지복합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독단주의의 측정에도 내용평정방법이 발달되었다(Ertel, 1972).

독단주의지수 (dogmatism quotient, DQ) Ertel은 Suedfeld처럼 전체 텍스트를 내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독단주의적 혹은 비독단주의적 사고형을 표현한다고 생각되는 (Ertel 자신에 의해) 미리 정해진 단어 및 어휘들을 쓴다. 그는 이를 독단주의 내용평정 (Dogmatismus Textauswertungs-, DTA-) 절차라 부른다.

그의 DTA- "사전"은 다음 여섯 범주에 속하는 430 개의 단어 및 어휘들로 구성된다: (1) 빈도, 지속, 분포(언제나, 궁극적으로, ..... 對 종종, 널리, .....) (2) 수와 양(모두, 누구나, 꼭, ..... 對 대부분, 내강, 적어도, .....) (3) 정도(원칙적으로, 전혀, (최상급), ..... 對 매우, 드물게, (비교급), .....) (4) 확신(필연적으로, 절대로, 물론, ..... 對 아마, .....계 보인다, .....) (5) 배제, 포함, 정당범위(... 외에는 모두, 무조건, ..... 對 경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 (6) 필연, 가능(...하지 않으면 안된다(müssen), .....할 수가 없다(nicht können), ..... 對 .....할 수 있다(können), .....한 것은 아니다(nicht müssen), .....)

괄호마다 앞부분에 열거한 예들은 "독단주의적(D+)" 단어들이고 뒤에 든 예들은 "비독단주의적(D-)" 단어들이다. 독단주의지수(DQ)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DQ = \frac{\sum D^+}{\sum D^+ + \sum D^-}$$

DQ의 구성타당도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여진다. (1) 진보적인 좌우파에 비하여 극좌와 극우들의 DQ 수준이 높았다(Weimar 공화국시대의 공산당-사회민주당-국가사회당 비교, Ertel, 1972). (2) DQ와 D-척도 점수는 정적 상관을 보인다( $r = .38, p < .05, Günther, 1976$ ). Günther는 고등학생 집단에서 연구와 관계없이 국어시간에 단채로 쓰여진 작문들을 DTA-절차에 따라 평정하고 학생들에게 D-척도도 실시했다.

(3) Günther (1976)는 DTA-절차, D-척도, 성격검사 척도들을 기초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내향성-독단주의, 사회·정서적 불안정, 자기통제 결여 등 세 요인을 얻었다. 그러한 결과에 따라 그는 내향성이 독단주의적 사고형의 개인성향적 요인이며 정서적 참여가 상황적 요인이라고 보았다. 내향성과 불안성향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 Günther는 Eysenck (1965)를 인용하여 이렇게 생각하였다-위의 추리는 독단주의를 불안 및 불안방어로 보는 필지의 견해와 일치한다.

(4) 상황적, 정서적 불안정의 "독단주의화" 효과는 충분히 증명되었다. 예로서, 베를린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동독신문의 D수준도 같이 상승하였다(Ertel, 1976). 또 히틀러의 D수준은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 상당히 높았다가 그 직후에 똑 떨어졌고 1937년부터 終戰까지 다시 계속 상승하였다(위).

그러나 DQ가 상황적 위협에 대한 부정적 정서적 긴장 뿐 아니라 나아가 일반적 정서성을 측정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Ertel은 회곡작품들에서 여러 정서상태를 묘사하는 귀절들을 평정한 결과, 분노와 증오 같이 매우 강한 부정적 감정들이나 회멸과 승리감 같이 긍정적으로 매우 강한 감정들이 다 같이 체념과 우울 같은 무활동상태들에서 보다 높은 DQ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Günther의 연구에서 DQ가 높은 글들은 정서적, persönlich (개인적 또는 私的), 참여적인 것으로, 문체

2) "독단주의적 Stil (= style)"에서 Stil은 문체를 말하지만 Denkstil (= thinking style, 사고형)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독단주의적 문체특성들의 일부는 자살기도자들의 "altness terms" (Osgood & Walker, 1959)와 이념 및 선전언어의 "전체주의적 문체" (Dieckmann, 1969)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에서는 반대극, 즉 "비독단주의적" 언어는 따로 파악되지 않는다. 이것은 Rokeach가 D-척도의 제작에서 비독단주의적 문항, 즉 부정해야 독단주의로 채점되는 문항을 작성하는 데 실패한 것을 상기시킨다.



상으로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근에 Ertel (1981)은 지금까지의 다양한 평정결과들을 “인지적 Prägnanz 역학”(kognitive Prägnanzdynamik)의 가설 하에 통합하였다.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들을 몇 가지 더 인용하자면(Ertel, 1981 ; p.132) :

1. 선전책자들은 정보제공 책자들과 비교하여 더 높은 DQ를 보인다(여행선전 팸플렛과 여행안내서 비교).
2. 픽션은 년픽션보다 높은 DQ를 보인다(소설 - 신문 및 에세이)
3. 법조문은 그에 따르는 주석보다 높은 DQ를 보인다.
4. 경구, 금언 등은 저자의 정상적 저술보다 높은 DQ를 나타낸다(Lichtenberg, 모택동 등).
5. 체계적 철학이론은 덜 체계적인 철학적 저술들보다 높은 DQ를 보인다. 이는 Kant의 저술들의 종단연구와 Wittgenstein의 전후기 비교에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질서에 대한 욕구 내지는 충동”(Metzger, 1954)<sup>3)</sup>이 강할 때 DQ도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rtel에 의하면 DQ는 “복합도와 불확실을 감소시키려는 성향의 강도, ... 즉 신념을 형성하려는 마음태세”(1979, p.204)를 측정해준다. 그의 평정 결과들은 인간이 불안상황(위협)에서만 아니라 흥분한 정서상태에서도 자신의 체계를 방어하고 대신 현실(과제장면)을 무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실에서의 후퇴는 강한 정서상태(불안 포함)에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지만 광고, 픽션 등에서와 같이 의도되는 것일 수도 있다.

복합도와 불확실의 감소 및 신념형성은 근본

적인 독단주의적 사고과정을 특징짓는다. 지금까지의 평정결과들로 볼 때 DQ는 독단주의적 사고형의 정도를 측정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도구이다.

### 인지복합도와 독단주의의 관계

인지복합도와 독단주의 이론들은 둘 다 직접적 선배가 되는 이론들(예 : Adorno 등, 1950)과 대조적으로 ‘인지적 구조 변인을 다룬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사회심리학자들인 Schroder 등이 자극과 반응의 객관적 탐구에 주력한 반면, 정신분석적 토대를 가졌던 권위주의이론에서 출발한 Rokeach는 독단주의를 불안에 대한 “정신분석적 방어기체들의 조직망”(1960, p.70)으로 부를 정도로 심리역동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인간을 정보처리체제로 보는 관점은 서로 공통적이거나 Schroder 등은 정보의 분화와 통합, 즉 정보처리 측면을, Rokeach는 생각과 신념들의 용인과 거부, 즉 정보수용 측면을 강조한다(Abelson, 1979, “지식체계”와 “신념체계”). 인지복합도가 지능과, 그리고 독단주의가 불안 내지는 일반적인 정서적 흥분과 상관되는 것도 인지과정 자체를 강조하는 복합도 이론과 정서상태가 인지구조 및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독단주의 이론 간의 차이를 반영한다.

극단적 판단, 갈등의 회피 내지 억압, 권위의 존성, 주관적 확신 등 낮은 복합도와 높은 독단주의의 전형적 행동방식들은 매우 유사하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PCT와 D-척도 점수 간에 얻어진 상관(Schroder 등에 의하면 -.2)은 너무 낮다고 여겨진다. 아마도, 심층의 불안, 고독감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독단주의로 이끈다 해도, 인지구조의 단순·복합 여부는 어느 정도로는 개인의 知的 능력과 관계되므로 (“지적 능력과 인지적 기호의 상호작용의 산물”, Streufert & Streufert, 1978, P. 90) 독단주의와 복합도 간의 높은 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PCT와 D-척도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해 아직 논란이 있기 때문에(Seiler, 1973 ; Kluck, 1978 ; Roghmann, 1966

3) 좋지 않은 조건(축소, 어두운 조명, 짧은 제시시간 등) 하에서 자극도형이 제시될 때 “좋은 Gestalt”를 지각하는 경향은 Metzger에 따르면 불분명한 문제상황에서 질서(즉 “좋은 Gestalt”)를 강요(Erzwingen der fehlenden Ordnung)하거나 부조화를 “얼버무리”(Vertuschung) - 이의 반대는 사태의 능동적 탐색 - 인지적 Prägnanz 경향과 상응된다.

등) 복합도와 독단주의 간의 실제 관계를 확실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인지복합도와 독단주의 개념의 타당화에 관계된 연구들이 흔히 의의있는 결과를 얻지 못한 하나의 원인은, 주어지는 과제 자체가 두 변인의 관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cf. Ehrlich & Lee, 1969). Seiler들의 연구에서는 PCT로 측정된 것이 피험자들의 복합도 수준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열심히 검사와 실험에 임했느냐 하는 성실성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까지 나왔던 것이다. 갈등이나 결정압력이 없고 과제가 피험자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지복합도 성향이 노출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인지복합도와 독단주의의 개인차를 연구할 때 과제의 어려움(복잡함과 중요성 개인의 동기)이 가질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두 요인 중 하나 혹은 둘 다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행동의 복합도는 감소하고 독단주의는 증가하며 개인차는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행동의 복합도와 독단주의가 과제상황에 따라 예민하게 변한다는 것은 Suedfeld들과 Ertel이 텍스트분석을 통하여 인상적으로 보여주었다.

Suedfeld들과 Ertel이 평정한 텍스트들은 현실의 문제장면에서 산출된 성취결과들이다. 실험실에서는 과제의 복합도는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조작할 수 있지만 문제해결자의 동기(혹은 involvement)는 만족스럽게 조작하기 어려운 것이다. 현실의 “복합적 과제장면”들에서는 문제의 복합도와 개인의 높은 동기상태가 가정될 수 있고, 실험실연구에서 종종 일어나는 피험자의 의도적 결과 왜곡도 문제되지 않으며, 아울러 결과의 높은 外的 타당도가 주장될 수 있다.

Suedfeld들은 Schroder 등의 PCT 반응평정준거들을 그대로 채용하여 통합복합도를 산출하는 반면, Ertel의 독단주의지수(DQ)는 그 자신이 고안한 “언어통계적” DTA절차에 의하여 산출된다. 독단주의 측정치로서 DQ의 타당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동안의 평정결과는 DQ가 불안방어로서의 독단주의

보다 더 일반적인 현상을 측정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왜곡된 정보수용, 극단적 판단, 권위의존성 등 인지적 단순화경향이 주관적, 객관적 위협에 대한 반응일 뿐 아니라, 흥분해 있을 때나 남을 설득하고자 할 때에도 관찰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통합복합도와 DQ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볼 때, 복합적 과제장면에서 산출된 텍스트들의 복합도와 DQ는 서로 負的 관계를 보이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또, 동일한 개인들이 여러 상이한 상황들에서 산출한 텍스트를 분석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지고 긴박해짐에 따라 DQ는 올라가고 복합도는 내려가리라고 기대된다.

여러 개인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같은 양상의 변화를 보이거나 절대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면, 거기서 상황의 영향과 성향의 개인차 둘 다를 추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통합복합도나 DQ가 과제상황에 따라 예민하게 변한다고 해서 성격변인으로서의 인지복합도나 독단주의 개념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히틀러를 예로 들면, 그의 DQ는 앞서 쓴 바와 같이 상황에 따른 변화를 보였으나 그의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DQ도 절대적으로는 극히 높은 것이었다.

현실의 문제상황들에서 산출된 성취결과들은 과제복합도와 동기 두 요인이 최적인 혹은 최적을 넘어서는 상태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즉, Schroder 등의 U-곡선의 위의 절반에 해당되는 과제상황들인 바, 이 경우 DQ와 복합도 간에는 負的 관계가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실험실연구에서는 의무적으로 참가한 피험자들이 과제(테마)에 흥미를 못느끼는 상태에서 텍스트를 산출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성수준”(Hebb, 1955)이 낮고 따라서 DQ는 물론 복합도도 낮을 것이다(DQ와 심리적 각성수준에 대해서 Schwibbe, 1981 참조). 이렇게 보면 DQ와 통합복합도의 관계는 가능한 상황들의 전체범위를 놓고 볼 때 거꾸로 놓은 U자 곡선의 형태가 될지 모른다. 즉, 최적 각성수준이 있듯이(Hebb, 1955) 최적 DQ가 있으며, DQ

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매우 높은 경우에서의 마찬가지로 복잡도가 낮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PCT와 D-척도 간의 낮은 상관을 설명해줄지도 모른다. 즉, PCT점수가 낮은 사람들 가운데는 D점수가 높은 사람 뿐 아니라 낮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되어, D점수가 아주 낮은 층이 중간층보다 높은 D점수층과 더 유사하게 행동한다는 결과가 종종 얻어진 바 있다(Rokeach & Kemp, 1960; Becker, 1967).

이상에서 인지복합도와 독단주의의 이론과 방법, 연구결과들을 개관·비교하였다. 현상에서 이들 변인들 각자에 대한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위해 제안한다면, 이들 개념들을 측정하는 도구의 타당화가 개념내용의 확장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 PCT나 D-척도 등의 검사들을 지금까지처럼 무반성적으로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직접 관련이 없는 변인들 - 출처 채택되기로는 독창성 (creativity), 편견 등 (Seiler, ed. 1973; Rokeach, 1960) - 과의 관계를 상관을 통하여 혹은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인지복합도나 독단주의 이론의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PCT와 D-척도, DQ가 무엇을 측정하는가, 요인구조적으로 단일한 것을 측정하는가가 보다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 D-척도를 Roghmann(1966)이 제안한 것처럼 불안, 권위주의, 구조특성의 세 하위척도로 분할하여 각각을 별개의 하위검사인 것처럼 취급한다면 더 도움이 될지 모른다. PCT나 DQ가 셋 중 어느 한 하위척도와 특히 높게 상관되고 어느 것과는 낮은 상관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DQ의 요인구조는 Schwibbe(1981)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상관연구에 있어서 PCT나 D-척도(혹은 하위척도들)와 단일검사와의 상관을 조사하기보다는 불안, (언어)지능, 여타의 인지스타일 변인 등 이론적으로 관계있는 여러 변인들을 같이 측정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PCT나 D-척도의 타당

도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험연구에서는 Schroder 들이나 Rokeach, 그리고 다른 많은 연구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PCT나 D점수가 상하로 극단적인 집단을 형성하여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검사점수와 문제해결 행동 간에 곡선적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관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실험연구에서도 단일한 과제장면보다는 그 복잡도와 중요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여러 과제장면들에서 행동을 관찰하도록 한다면 복잡도나 독단주의의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피험자들이 문제 - 텍스트를 산출할 경우, 테마 - 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문제의 복잡도는 인지되지 않을 것이며, 실험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상의 약속이나 처벌의 위협으로는 만족스러운 동기상태를 유발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한 경우 행동의 복잡도와 독단주의는 피험자들의 역량이나 성향을 반영하기보다는 과제에 얼마나 흥미를 느꼈느냐 혹은 얼마나 진지하게 실험에 임했느냐 등의 태도를 더 반영하게 될 것이다. 그런 연구에서 발견된 복잡도와 DQ의 관계는 복합적 과제장면에서의 두 변인의 관계로 일반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 참 고 문 헌

- Abelson, R. P. Differences between belief and knowledge systems. *Cognitive Science*, 1979, 3, 355-366.
- Adorno, T., Frenkel-Brunswi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1950.
- Becker, G. Ability to differentiate message from source as a curvilinear function of scores on Rokeach's Dogmatism Scal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67, 72, 265-273.
- Dieckmann, W. *Sprache in der Politik*. Einführ-

- ung in die Pragmatik und Semantik der politischen sprache. Heidelberg: Carl Winter Universitätsverlag, 1969.
- Dörner, D. *Problemlösen als Informationsverarbeitung*. Stuttgart: Kohlhammer, 1976.
- Dörner, D. Über die Schwierigkeiten menschlichen Umgangs mit Komplexität. *psychologische Rundschau*, 1981, 32, 163-179.
- Dörner, D. & Reither F. Über das problemlösen in sehr komplexen Realitätsbereich. *Zeitschrift für experimentelle und angewandte Psychologie* 1978, 25, 527-551.
- Ehrlich, H. J. & Lee, D. Dogmatism, learning, and resistance to change: A review on a new paradigm. *Psychological Bulletin*, 1969, 71, 249-260.
- Ertel, S. Erkenntnis und Dogmatismus. *Psychologische Rundschau*. 1972, 13, 241-269.
- Ertel, S. Überzeugung, Dogmatismus, Wahn. *Georgia Augusta*, Nachrichten aus der Universität Göttingen, Mai, 1976, 32-39.
- Ertel, S. Furcht vor Überzeugungsverlust? Gedanken zu einer philosophischen Anmerkung von Volker Gerhardt. *Zeitschrift für Sozial Psychologie*, 1979, 10, 197-206.
- Ertel, S. Wahrnehmung und Gesellschaft. Prägnanz-tendenzen in Wahrnehmung und bewußtsein. *Semiotik*, 1981, 3, 107-141.
- Eysenck, H. J. Persönlichkeits theorie und Psychodiagnostische Tests. *Diagnostica*, 1965, 11, 3-27.
- Geyer, A. & Greif, S. Beziehung zwischen strukturiertheit, Intelligenz und Kreativität. In: *Seiler (Ed.) (1973)*, S. 146-161.
- Greif, S. & Seiler, Th. B. Testinstrumente zur Erfassung der kognitiven Strukturiertheit. In: *Seiler (1973)*, S. 70-83
- Günther, U. *Dogmatischer Stil, Leserrezeption und Autorenpersönlichkeit. Zur Konstruktvalidierung von Ertels D (ogmatismus)-Stilmerkmalen*. Univeröffentlichte Diplomarbeit, Heidelberg, 1976.
- Harvey, O. J. Conceptual systems and attitude change. In: P. B. Warr (Ed.) *Thought and Personality*. Penguin Books, 1970, S. 315-333 (ursprünglich erschienen in C. W. Sherif U. M. Sherif (Hrsg.) *Attitude, Ego-Involvement and Change*, 1967)
- Hebb, D. O. Drives and the C.N.S. (conceptual nervous system). *Psychological Review*, 1955, 62, 243-255.
- Kluck, M. L. Einige Probleme bei der Messung von "Integration". In: *Mandl u. Huber (Eds.) (1978)*, S. 249-262.
- Krohne, H. W. *Angst und Angstverarbeitung*. Stuttgart: Kohlhammer, 1975.
- Krohne, H. W. Laucht, M. Zur Operationalisierung des Konstruktes der kognitiven Strukturiertheit. In: *Mandl u. Huber (Eds.) (1978)*, S. 193-217.
- Lazarus, R. S. & Averill, J. R. Emotion and cogni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anxiety. In: *Spielberger (Ed.) (1972)*, Vol. 2, S. 241-283.
- Mandl, H. u. Huber, G. L. Eds: *Kognitive Komplexität. Bedeutung, Weiterentwicklung, Anwendung*. Göttingen: Hogrefe, 1978.
- Metzger, W. *Psychologie. Die Entwicklung ihrer Grundannahmen seit der Einführung des Experiments*. Darmstadt: Steinkopff, 1954.
- Newell, A. & Simon, H. A. *Human Problem Solving*. New Jersey: Prentice Hall, 1972.
- Osgood, C. E. & Walker, E. G. Motivation and language behavior: A content analysis of suicide not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59, 59, 58-67.
- Phares, J. O. & Schroder, H. M. *Structural scoring manual for Paragraph Completion Tes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69.
- Rogmann, K. *Dogmatismus und Autoritarismus. Kritik der theoretischen Ansätze und Ergebnisse dreier westdeutscher Untersuchungen*. Meisenheim am Glan: Verlag Anton Hain,

- 1966.
- Rokeach, M. *The Open and Closed Mind*. New York: Basic Books, 1960.
- Rokeach, M. & Fruchter, B. A factorial study of dogmatism and related concept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56, 53, 356-360.
- Rokeach, M. & Kemp, C. G. Open and closed systems in relation to anxiety and childhood experience. In: *Rokeach (1960)*, S. 347-365.
- Rokeach, M., Toch, H. H., & Rottman, T.: The effect of threat on the dogmatization of catholicism. In: *Rokeach (1960)*, S. 376-388.
- Schroder, H. M., Driver, M. J., & Streufert, S.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7.
- Schwibbe, M. *Untersuchungen zur Validierung kontentanalytischer indikatoren: Dogmatismus, Abstraktheit, Redundanz*. Dissertation, Göttingen, 1981.
- Scott, W. A., Osgood, D. W. & Peterson, C. *Cognitive Structure: Theory and Measure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Washington: Winston & Sons, 1979.
- Seiler, E. & Seiler, Th. B. Kognitive Strukturiertheit und problemlösen. In: Seiler (Hrsg.) (1973), S. 161-176.
- Seiler, Th. B. (Ed.) *Kognitive Strukturiertheit. Theorien, Analysen, Befunde*. Stuttgart: Kohlhammer, 1973.
- Seiler, Th. B. Empirische, theoretische und praktische Bilanz. In: Seiler (Hrsg.) (1972), S. 199-211.
- Spielberger, C. D. (Ed.)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2 Vols. New York: Academic Press, 1972.
- Spielberger, C. D. Anxiety as an emotional state. In: *Spielberger (Ed.) (1972)*, Vol. 1, S. 23-49 (a)
- Spielberger, C. D.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anxiety research. In: *Spielberger (Ed.) (1972)*, Vol. 2, S. 481-493 (b)
- Streufert, S. & Streufert, S. C. *Behavior in the Complex Environ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8.
- Suedfeld, P. & Rank, A. D. Revolutionary leaders: Longterm success as a function of changes in conceptual 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6, 34, 169-178.
- Suedfeld, P. & Tetlock, P. Integrative complexity of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ris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977, 21, 169-184.
- Suedfeld, P., Tetlock, P. E., & Raminéz, C. War, Peace, and integrative complexity: UN speeches on the Middle East problem, 1947-1976.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977, 21, 427-442.
- Wilson, G. D. & Nias, D. D. B. The need for a new approach to attitude measurement. In: G. D. Wilson (Ed.) *The Psychology of Conservatism*. London: Academic Press, 1973, S. 39-48.

(수정된 최종원고 접수: 1983.11.30)

## Vergleich der Theorien und Methoden der Kognitiven Komplexität und des Dogmatismus

Sook-Kee Ho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ährend Schroder, Driver und Streufert (1967) und Rokeach (1960) mit Hilfe von herkömmlichen Persönlichkeitstests kognitive Komplexität und Dogmatismus als Persönlichkeitsmerkmale untersuchten, haben Suedfeld und Rank (1978) und Ertel (1972) unabhängig voneinander durch die Inhaltsanalyse von politischen, historischen u. a. Texten gezeigt, daß Konflikte und Krisen in der Wirklichkeit Komplexität und Dogmatismus des Verhaltens beeinflussen.

Schroder u. a. führten den Begriff Umweltkomplexität ein, um die Variabilität der Komplexität des Leistungsverhaltens in Abhängigkeit von Aufgabensituationen zu erklären, für den Dogmatismus wurde die Wichtigkeit der Angstsituationen betont. Die vorliegende Arbeit unterscheidet zwei gemeinsame wesentliche Aspekte bei "komplexer Aufgabenumwelt" und Angstsituation: die Schwierigkeit der Aufgabe und die hohe Motiviertheit der Person. Sie erörtert, daß für die Untersuchung individueller Unterschiede in der Disposition der kognitiven Komplexität und des Dogmatismus die beiden Situationsaspekte in ausreichendem Maße vorhanden sein sollen, d. h., daß eine "komplexe Aufgabensituation" gegeben ist.

Nach der Darlegung jeder Theorie wurde der von den jeweiligen Autoren selbst entwickelte Test vorgestellt; anschließend wurden die inhaltsanalytischen Verfahren von Suedfeld hinsichtlich der Komplexität und von Ertel hinsichtlich des Dogmatismus sowie deren Forschungsergebnisse dargestellt.